

중세의 와카사만: 문화의 교차로

개요

12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와카사만은 수도와 일본 국내 및 아시아 대륙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중계점 역할을 한 일본해 연안의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식품, 미술품, 종교적인 도구 등의 물건이 오바마나 쓰루가 등의 큰 항구를 경유해 거래되면서 증가하게 된 사람들의 왕래는 사상의 공유와 문화교류에 기여했습니다.

상세 정보

식품, 미술품, 이국 동물의 수송

와카사만에서 북쪽 바닷길은 홋카이도까지 이르렀고, 남서쪽 바닷길은 규슈와 한반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화물은 식품이나 일용품뿐만 아니라 조각상이나 그림, 경전, 도자기 등의 귀중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408년 오바마항에 도착한 큰 배로, 일본에 서식하지 않는 수 마리의 동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마리는 코끼리로, 기록상 최초로 일본에 입국해 이후 제 4대 아시카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 1386년~1428년)에게 선물로 보내졌습니다. 또 이 코끼리는 1411년에 조선 국왕에게 공물로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국내 및 타국과의 무역관계

항구에 도착한 많은 귀중품은 다른 목적지로 보내졌지만, 일부는 와카사 지역의 유력한 일족이나 사원이 보존했습니다. 1422년에는 오바마의 하가지 절이 조선의 왕조인 고려(918년~1392년)의 귀중한 경전을 1325년에 옮겨쓴 화려한 범화경을 받았습니다. 하가지는 일본 내 교역관계에서도 혜택을 받았는데, 도호쿠 지방의 무장 아베 야스스에(安倍康季)가 1447년에 본당 재건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와카사만 지역의 기독교

와카사만의 항구를 통해 사상과 신앙을 일본에 가져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1560년 예수회(야소회로도 알려짐)는 요호켄 파울로(~1596년)라고 불리던 와카사 출신 남성에게 세례를 내렸습니다. 1580년에 바울로와 그의 아들인 도인 비센테(1540년~1609년)는 예수회의 새 회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서를 번역하여 일본에서의 초기 기독교 선교활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시품

이 코너에서는 와카사만을 거쳐간 다양한 물자와 문화현상을 보여주는 아이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13세기 불상은 힌두교의 전승에서 채택된 새와 비슷한 수호신 가루라(迦楼羅)를 나타냅니다. 이 조각상은 1990년에 너털너털한 붉은색 천에 싸여 유리케이스에 담긴 상태로 오바마 해안에 쏘아올려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져온 1471년 지도의 재판본에는 외국에서 오바마항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라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서의 사본에는 1408년 일본에 처음으로 코끼리를 가져온 배가 공작, 삼바, 앵무새 및 기타 외국산 동물도 태우고 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422년에 하가지 절에 기증된 법화경의 복제는 매우 세밀한 삽화와 감색 종이에 사용된 은과 금 물감 등의 고가 소재가 특징입니다. 또 다른 전시품은 예수회 개종자인 요호켄 파울로와 도인 비센테가 일본어로 번역한 기독교 성인들의 생애에 관한 책 '상투스의 작업 중 발초(성인행전(聖人行傳)의 발췌)'의 복각판입니다. 특히 이 번역은 라틴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은 백자상은 불교에서 자비의 보살인 관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16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와카사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아이를 안은 관음은 일반적인 불교 소재이지만, 일부 일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와 시각적, 상징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마리아 관음으로 이 상을 숭배했습니다.